

육군 복제 20년만에 파격 개편



육군이 20년 만에 바꾸기로 한 전투복(오른쪽). 왼쪽은 현재의 전투복이다. 육군은 전투복 색상과 무늬를 고안하면서 한번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위장효과를 극대화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검색순위 1위 사이트 '알고보니 사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개설해 수천만원의 돈을 빼돌린 이모(21)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2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초순 '올포유'(www.올포유안전거래.com, www.myallforu.co.kr)라는 사이트를 개설,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러던 47명으로부터 5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추석 연휴에 택배업체들이 업무를 보지 않아 배송조화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 연휴 직전에 사이트를 만든 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판매자가 노트북, 카메라 등을 싸게 파는 것처럼 꾸며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사기 사이트가 마치 에스스크로(결제대금예치) 사이트인 것처럼 꾸민 뒤 네이버에 '안전결제'라는 단어를 쳤을 때 파워링크 1순위로 또드록 광고료를 지불했다. /연합뉴스

폭설피해 보조금 8,100만원 가로채

광주지검 특수부는 21일 폭설 피해 국고 보조금 수 억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혐의(사기 등)로 수선업자 김모(4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영광지역을 강타한 폭설로 인한 피해 보조금을 노리고 그해 6월 16일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광어와 송어를 구입해 키운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해당군청에 제출, 국고 보조금 8천1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3년 12월 30일께 양식업을 하면서 자연재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모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의 대출금 1억3천2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중견 건설업체 사주 괴한들에 6시간 납치당해

호텔 사우나서...범인들, 마스크 쓰고 전기충격기 사용

경찰 포텐사 승용차 추적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N건설의 사주 공도(48)씨가 21일 광주 한 호텔 사우나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6시간 여 만에 풀려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공씨의 신병을 확보해 자세한 납치 경위를 조사하려 했으나, 공씨가 자세한 언급을 회피한 채 잠적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납치 = 21일 오전 9시20분께 광주 시 남구 백운동 국제호텔 지하 사우나

안 탈의실에서 공씨가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 7~8명에 의해 납치됐다.

공씨는 당시 일행 없이 혼자 사우나를 마치고 나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던 중이었다.

괴한들은 역할을 분담, 복면을 쓴 2명이 카운터 종업원의 신고를 막는 사이 흰 마스크를 쓴 20~30대 남자 5~6명이 전기충격기를 들고 사우나 탈의실 안으로 난입, 공씨를 납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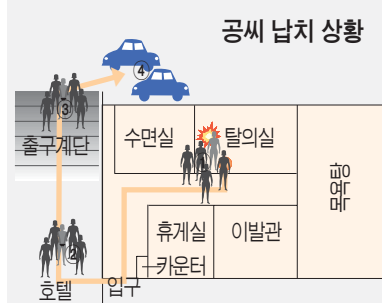
호텔 관계자는 "공씨가 '누구나, 왜 그러느냐'고 반항했고, 이어 전기충격기로

충격을 주는 소리가 들렸다"며 "공씨는 5분 뒤 상의만 걸친 채 검은색 포텐사 승용차에 태워져 사라졌다"고 전했다.

◇귀가 = 공씨는 납치 6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3시에 광주시 동구 계림동 주택가 골목에서 풀려났다.

공씨는 납치 과정에서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계림동 처가에 들어가 30여분간 휴식을 취하다 부인과 함께 집을 나선 뒤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상태다.

공씨는 장모에게 "납치범들이 '납치 대상을 잘못 알고 납치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보자기를 씌워서 (납치범들)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 경찰은 납치범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전기충격기까지 동원한 점으로 미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공씨 가족과 주변 인물,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씨를 태우고 갔던 경기지역 차량번호를 가진 검은색 포텐사 승용차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씨가 경찰 조사에 응하는 대로 납치 경위와 피해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공씨 왜 납치됐나

사업 확장과정 타 건설사와 갈등설

공씨 측은 '오인 납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씨는 장모에게 "납치범들이 '납치 대상을 잘못 알고 납치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보자기를 씌워서 (납치범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씨 회사 관계자도 "누군가 회장님을 잘못 납치한 것으로 안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범행이 자로 낸 듯 정교하게 이뤄진 데다 ▲납치차량 번호판이 공씨의 사업체가 있는 경기도에 적을 두고 있는 점 ▲공씨가 사업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을 빚어온 점 등은 '오인 납치'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경기지역 건설업체와의 갈등 ▲부도 당시 하청업체의 보

복 ▲개인적인 원한 중 한가지나, 이들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계획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특히 공씨가 지난 2004년 말 경기도 동탄 신도시 택지조성 과정에서 토지매매 문제를 놓고 경기지역 모 건설사와 법정다툼을 벌였던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36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조정 권고로 이를 지급했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투자 기대 이익금까지 보장하라"고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씨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부

도를 맞은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라인건설의 부사장으로 근무했으며, 광주 소재 N건설과 서울 소재 E건설의 실질 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공씨는 라인건설 부도 직후인 지난 2000년 N건설을 설립한 뒤 2001년 주택 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최근 E건설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재기 움직임을 보였다. E건설은 올해 경기 김포신도시와 관교신도시, 동탄신도시 등에서만 2천여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했다. /최정호·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학교폭력 사후관리 소홀

보복 폭행 불렀다

광주 동부경찰, 中3 6명 입건

학교폭력에 대한 허술한 사후 관리가 보복 폭행을 불렀다.

광주 동부경찰은 21일 학교 후배들을 노래방으로 데려가 집단 폭행한 광주 C중 3학년 조모(15)군 등 6명을 폭력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군 등은 지난 19일 오후 5시에 광주시 동구 산수동 T노래방 6번 방에서 학교 1년 후배 황모(14)·임모(14)군 등 6명을 무릎 꿇린 뒤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조 군 등은 지난 9월에 동구 산수동 산수공원에서 황 군 등

이 "선배보다 우리 또래가 싸움을 더 잘한다"고 말하고 다닌다며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군은 경찰에서 "당시 황 군이 우리에게 맞은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는 바람에 이 사실이 학교에도 알려졌고, 내가 등교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C중학교 학생부장은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학생기록부에 조 군이 등교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고, 다만 지난달 무단결석과 흡연 등의 이유로 교내봉사활동 5일을 명령받은 적이 있다"면서 "조 군 등이 후배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



학교폭력예방지원단 협의

21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예방지원단 협의회'에서 전남지방경찰청·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등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협조체제 구축과 가·피해자 선도, 치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9~10월 학교폭력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115건에 314명을 적발했다. 학교폭력은 ▲폭

나원침 (6982) 김홍두



평등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려는 3,636세대대단지! **영암면 400평 대단지 1단지** 수원신도시 파오래 **062-367-9000**

광주교육대 학생회관에 불

21일 새벽 4시50분께 광주시 북구 풍향동 교육대학교 학생회관 2층 풍물패 동아리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동아리방(20평)을 전부 태운 뒤 30분 만에 꺼졌다. 화재 당시 동아리방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주차 차량서 경우 흉터 다 '덜미'

○~40대 덩프트럭 운전기사가 길가에 세워둔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경우를 흉터오다 경찰에 덜미. **쌍나팔**

○~21일 영암경찰에 따르면 강모(44·목포시 용당동)씨는 지난 21일 새벽 4시 30분께 영암군 D초등학교 공터에 주차된 김모(37)씨의 굴삭기에서 흡입 모터기를 이용, 경우 200ㄹ 을 빼가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8차례에 걸쳐 경우 1만ㄹ (1천70만원 상당)을 훔쳤다는 것.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를 값을 아낄 생각에 시작한 일이 어느 틈에 커져 버렸다"면서 뒤늦게 후회.

/영암=김현민기자 hnmk@kwangju.co.kr

광주 ↔ 방콕 직항

방콕·파타야·김보디아

₩ 670,000 ~

GOLF ₩ 850,000 ~

광주 ↔ 홍콩 직항

홍콩·마카오·심천

₩ 650,000 ~

광주 ↔ 시엠립 직항

김보디아 | 앙코르-원 · 동봉

₩ 820,000 ~

홍콩전광빌, 홍콩중부항공, 광주전남익, 유명여행사 판매, 전세계 사무실, TEL: 02-226-6070